

임실N치즈축제 이벤트 열기 후끈 순창군 보편적 복지 모델 ‘주목’

SNS 댓글 응원·고향사랑 기부·현장 이벤트 등 다채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특별한 5일로 치러지는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전방위적인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최고의 축제, 꼭 방문하겠다는 호응이 쏟아지고 있다.

군은 2025 임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해 SNS 댓글 응원 이벤트,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이달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있다.

군청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치즈축제를 응원하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임실치즈돈까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난 15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2025 임실N치즈축제 댓글 응원 이벤트는 25일 현재 조회수 1만 6,236회, 댓글 530개를 돌파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임실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예에 참여한 사람 중 임실N치즈축제 고향사랑기부예 홍보 부스를 방문하거나, 축제 현장에서 직접 기부한 기부자에게 답례품은 물론 2만8천원 상당의 ‘임실N치즈피자(L)’ 한판(경품)을 무상으로 증정한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특별한 5일로 치러지는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전방위적인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최고의 축제, 꼭 방문하겠다는 호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 답례품으로 ‘임실엔치즈요거트 3호 세트’를 선택하면 특별 제작된 한정판 패키지 ‘무가당요거트 속성치즈’ 답례품을 직접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임실N치즈축제 현장 기부자는 물론 임실 고향사랑기부예에 참여했으나 답례품을 신청하지 않아 잔여 포인트가 남아있는 기부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한정판 패키지는 임실군 답례품의 가운은 임실N치즈축제 기간(10.8~10.12) 관광객 참여 확대와 지역 방문 효과 강화를 위해 현장 이벤트도 운영

한다. 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이 개인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축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현장에서 확인 후 익월 15일 이내 1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이벤트는 임실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임실N치즈축제 방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임실군의 따뜻한 고향 사랑과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1회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 개최

남원시, 내달 19일 진행... 10월 10일까지 참가 접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고(故) 류명철 명인의 업과 정신을 추모·계승함과 동시에 농악 꿈나무 육성을 위해 오는 10월 19일, 남원시 요천면 특설 무대에서 ‘제1회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를 연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8종의 국가무형문

화재 농악이 지정, 그중 하나가 2019년 등재된 남원농악이며, 고(故) 류명철 명인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부들상모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현재는 (사)남원농악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놀이·사물놀

이·전통 연희 등 다양한 종목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총 상금은 1,770만 원으로,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남원시장 상이 수여되며, 청소년부 대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도 각각 마련돼 전국 농악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nwnggak@naver.com)이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남원시립농악단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군부대 위문 방문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21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명절의 풍성함을 지역 곳곳에 함께 나누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들과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 김영태 의장은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장병들에게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묻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영태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따뜻한 정이 넘



치는 남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회서 열린 ‘입법박람회’ 포럼서 정책 성과 발표

순창군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지방보편민주주의자치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과 그로 인한 가시적 성과를 소개했다.

최 군수는 “민선 8기 순창은 출산에서 노년까지 군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실천해왔다”고 강조하며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통장, 농민 기본소득, 노인 일자리와 돌봄·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온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 농업인 1인당 200만 원 지급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농민 기본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 인구순증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2023년 79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116명 증가하며 군 전체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군민 86.2%가 긍정적으로 답해 정책 효과를 수치로 입증했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행정조직 정비, 조례 제정, 주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성과와 실행 기반을 모두 갖춘 순창이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기재부-교육부-전북대, 국유재산 부지교환 협약

남원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0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간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교육부(차관 최은욱)·전북대(총장 양오봉)와 함께 부지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을 교환·활용해 배교라는 지역의 상치를 미래 인재양성 거점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국유재산 활용 모델을 만들어낸 사례로, 중앙·지방·교육 협력의 상징적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남원시가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부지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수년간 기재부·교육부·전

북대와 전례 없는 국유재산 교환 절차를 하나하나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결실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남원시는 이번 MOU 체결과 더불어 지난 9월 23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완료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기재부와의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부지교환 MOU를 계기로 국가·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선도적 국유재산 활용 모델을 굳건히 만들어 가고, 지역혁신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 사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추석 연휴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 전면 무료 개방

남원시는 추석 연휴(10월 3일~10월 9일)에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를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과 시민 방문 증가에 대응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 대상 주차장은 △시청 주차장(197면) △도통지구 주차타워(258면) △시장 4가 주차장(81면) △구 군정 주차장(95면) △관왕로 옆 주차장

(55면) 등 총 5개소이며, 정기간 사용자에게는 무료 개방 기간 일할 계산한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무료 개방 안내를 위해 남원시는 주차장 입구 현수막 게시, 공식 SNS 및 홈페이지 공지, 이·통장 회의 및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남원시 교통정보 앱을 통해 실시간 주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드림스타트 추석맞이 꾸러미 지원

임실군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위해 ‘풍성한 한가위, 정을 나누면 행복해요’ 추석맞이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정 총 9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담면, 설탕, 양념류 등 명절에 필요한 식품 10종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택배를 통해 가정으로 발송했다.

특히, 지역 마트의 협조로 택배비를 지원받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관협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군은 마트 측의 따뜻한 동참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임실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임실군이 지난 24일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참여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더 이상 공동대표 및 성공회대 임팩트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인 이호 강사가 약 2시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방향과 함께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군민의 관심 및 이해 제고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에 이어 10월 중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26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